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서의 연령별·성별 차이검증: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매개효과*

서정길[†] 이하연¹⁾ 권영미²⁾ 박주화³⁾ 최훈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남북 교류와 화해의 교두보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예측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남북관계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합의를 지닌다. 2021년 수집된 전국 단위 조사 자료($N = 1,600$)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이를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매개하였다. 한편, 성차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29세 미만의 청년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54세 이상의 장년층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29세 미만 청년층에서의 성차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54세 이상 장년층에서의 성차는 한민족 동일시가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 및 성별 하위집단 간의 대북지원 태도 차이가 한민족 동일시 및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라는 심리적 특성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심리학적 발견이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주요어 :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연령, 성별, 한민족 동일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 본 논문은 통일연구원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후연구원

1) 경상국립대학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북한대학원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E-mail: hchoi@skku.edu

 Copyright ©2025,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2020년 초 시작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남북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봉쇄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2019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맞물려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교류협력 역시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는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부족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북중 무역까지 중단됨에 따라 북한 경제 및 주민의 복리후생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용희, 2021; 정은찬, 김재현, 2020).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라는 인류 보편 가치 실현은 물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교류와 화해의 장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의 전지구적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예방백신 및 치료제 보급 등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남북관계의 중요한 미래의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가깝게는 대북정책 효과성 제고에, 멀게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북정책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연령, 성별,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 특성에 따른 차이에 주목해 왔다(예: 구본상, 2020; 배진석, 2018; 장기영, 2018). 이러한 방법은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의 하위집단 간 분절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효과

성을 담보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다만, 인구통계 변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제약을 지닌다.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는 성격, 동기, 신념, 가치관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받으며(Huddy et al., 2013), 인구통계 변수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의 원격 변수에 해당한다(Dallago et al., 2008; Mirisola et al., 2007). 따라서 인구통계 변수에 따른 인식 차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어떠한 심리 변수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최훈석 등, 2019, 2021).

본 연구는 남북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구본상, 2020; 배진석, 2018; 장기영, 2018)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일관되게 관찰되었음에 착안하여, 코로나19 시기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어떤 심리 변수가 이러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사회의 주요 담론은 크게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 담론과 남북화합과 통일이 유발하는 국가적 이익에 기반한 통일편의 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송두율, 2000; 이석희, 강정인, 2017). 전자는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당위적 인식에 기반하며, 후자는 통일이 한국에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효용론을 바탕으로 한다. Bar-Tal(2000, 2007)의 고착화된 갈등 이론(intractable conflict theory)에 따르면, 집단 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갈등 당사자 집단의 구성원들은 갈등에 관한 서사(narrative)

를 생성하고 유지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가 갈등에 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면서 구성원들은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통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고착화된 갈등 이론은 갈등 당사자들의 집단 동일시와 갈등 해소의 편익에 관한 효용론적 신념이 갈등의 서사를 이루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관한 한국사회의 주요 담론과 중요한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착화된 갈등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갈등 상황에서 한민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반영하는 한민족 동일시와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성이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대북지원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최근 남북관계를 다룬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예: 남희은 등, 2014; 박주화 등, 2019, 2020, 2021; 박찬, 최훈석, 2023; 이하연 등, 2022, 2023).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대북지원 태도 차이를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매개한다고 예상하고, 이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연령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한국 사회에서 통일 및 북한에 대한 태도가 진보-보수 정치성향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점에서(강원택, 2005; 윤성이, 이민규, 2011; 한정훈, 2016), 연령과 정치성향의 관계에서 연령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의 관계에 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한국에서 연령과 정치성향의 관계에 관한 과거 담론은 연령

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노환희 등, 2013; 이내영, 2002). 이러한 주장은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 20대를 보낸 60년대생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현상을 지칭하는 '386세대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명호, 2009; 서현진, 2008; 오세제, 이현우, 2014).

그러나 최근 일련의 변화들이 관찰되면서 청년층의 보수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시기에 10대를 보낸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및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김한나, 박원호, 2023; 허석재, 2014). 일군의 연구자들은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이전 세대와 달리 당위론적 통일 인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즉,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바라보기보다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통일과 대북지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권영승, 이수정, 2011; 김병조, 2015; 변종현, 2012). 이는 곧 한국의 젊은 세대는 대북 교류협력을 지지하고 나이 든 세대는 강경책을 선호한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배진석, 2018).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코로나19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 성향이 강하므로 코로나19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가 궁정적일 것이라고 단순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특정 세대가 경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보면(Mannheim, 1928/1952),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2000년대

에 10대를 보낸 8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386 세대를 중심으로 한 기성 세대에 비해 코로나19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이 입은 경제적 피해와 지원 소모를 고려할 때에도 남북관계에서 편익을 고려하는 젊은층의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예상은 이를바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노년층의 보수성에 관한 일반 상식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통일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현상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도적 대북식량지원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동포를 돋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영민, 윤지현, 2020). 오랫동안 민족주의 통일 담론의 영향을 받아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노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낸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북한 주민들을 같은 동포로 인식하여 이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령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다.

연령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의 관계에서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매개 효과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한반도를 터전으로 오랫동안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발달시켜 온 단일 민족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남한과 북한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하위 집단이다. 한민족 동일시란, 개인이 스스로를 한민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한민족이라는 집단에 대해 정서적 애착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최훈석 등, 2019). 사회정체성 이론(Tajfel & Turner, 1979)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자신이 속해 있지 않은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기 긍정성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려는 동기를 지닌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내집단에 강하게 몰입할수록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행동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 점에 착안하여 Gaertner 등(1993)은 집단 간 갈등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공통 내집단 정체성(common ingroup identity)의 역할을 강조한다. 집단 간 갈등 상황에 처한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를 외집단이 아닌 공통의 상위 내집단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되면 상대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행동이 경감된다. 이로부터 추론하면, 한민족 동일시가 강할수록 북한을 적대 국가가 아닌 같은 민족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대북지원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일관되게, 선행연구에서 한민족 동일시는 북한과의 화해 의도 및 통일

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최훈석 등, 2019, 2021).

한편, 연령과 한민족 동일시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는 사회적 대상을 자신이 속한 내집단과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비교하여 내집단의 상대적 긍정성을 지각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된다(Bennett & Sani, 2004; Tajfel & Turner, 2004). 즉, 사회적 상황을 한민족과 한민족이 아닌 사람들로 구분하여 지각하고, 이를 통해 한민족의 긍정성을 자주 인식할수록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가 강화된다.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관한 논의는 남한과 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 돋고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통일 담론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송두율, 2000).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하여 통일을 논해야 한다는 보편가치 담론과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통일편의 담론이 대두되면서 민족주의 담론의 유효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이석희, 강정인, 2017). 또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민족 정체성의 강조가 인종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타났다(정순미, 2009).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중등 도덕 교과서에 다문화·다인종 교육요소를 반영하도록 고시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 단일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에 대한 언급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와 맞물리면서 한민족 정체성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로 인해 청년 세대의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강화되기 어려웠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반발이 거세었던 2018년의 논란(임승엽 등, 2018) 역시 이러한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민족 동일시의 매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연령이 한민족 동일시를 매개로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예측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높고,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개인과 집단 가운데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가치관, 자기관, 신념, 규범 등의 총화를 뜻한다(Triandis & Gelfand, 2012).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독특성과 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 속 역할과 책임, 그리고 집단 전체의 이익과 목표가 강조된다. 개인주의-집단주의는 주로 국가 간의 문화 차이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한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이 모두 같은 수준의 문화적 지향성을 지니지는 않는다(Au, 1999; Pelto & Pelto, 1975). 개인마다 문화적 규범 또는 이념을 내재화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며, 한 사회 내에서 지역, 계층, 종교 등에 따라 하위집단 간 문화 차이가 관찰되기도 한다(Realo & Allik,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문화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문화적 지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예: Choi, 2024; Leung & Cohen, 2011; Youssef & Christodoulou, 2018).

개인 수준에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상충할 때 집단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Choi, 2024).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집단의 이익과 목표를 중시함에 따라, 개인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집단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코로나19 대북지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국가적 이득을 수반하는 반면, 개인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국내 문제에 쓰일 예산이 줄어든다는 인식 때문에 개인에게는 손해로 여겨질 여지도 있다. 따라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강하게 지닐수록 개인적 손해보다 국가적 이익을 중시함에 따라 코로나19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이와 일관되게,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한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성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통일 필요성 인식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남희은 등, 2014).

한편, 연령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간에도 정적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었으나, 1990년대 이래 한국인의 가치관에서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나은영, 차유리, 2010; 박준성, 2024; 최혜원, 2023; 한규석, 신수진, 1999). 청년 세대가 장년 세대에 비해 통일을 민족적 당위가 아니라 경제적 편익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 역시 이러한 변화와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령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의 관계에 대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매개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2. 연령이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매개로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예측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하고,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다.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서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

연령과 함께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인구통계 변수는 성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남성 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우며, 연령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주장은 Inglehart와 Norris(2000)가 제안한 전통적(traditional) · 현대적(modern) 성차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들에 따르면, 196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치 참여에 소극적이며,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사회 구조와 성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전통적 성차에서 현대적 성차로의 변화는 성별에 따른 정치적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성차가 나타나는 역사적 ·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 문헌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변종현(2021)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전통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통적 성차가 점차 사라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여성주의(feminism)의 확산과 함께 여성들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한국에서 2010년대 후반 등장한 ‘이대남 현

상에 대한 담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말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이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최종숙, 2020). 이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 일팀 논란, 2020년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의 정치적 사건을 거치면서 20대 남성들의 정치적 보수성과 반 여성주의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청년 세대의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성별 하위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이를 탐색하는 작업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연령, 성별과 대북지원 태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Guimond 등(2006)에 따르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차는 성별 집단 간 사회 비교와 자기고정관념화(self-stereotyping)에 의해 촉진되며, 이로 인해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역설적으로 성차가 강하게 관찰되기도 한다(예: Schwartz & Rubel, 200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대 남녀가 서로를 경쟁과 비교의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회 현안에 대한 태도에서의 성차가 촉진될 것이라 추론 가능하다.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안보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북한 문제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류현숙 등, 2013; 이내영, 2014), 최근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이 20대 남성보다 통일 및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구본상,

최준영, 2019; 박범종, 서선영, 202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 여성의 같은 세대 남성보다 코로나19 대북지원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중·장년 세대의 성차 양상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단순히 전통적 성차가 존재할 것이라 가정한다면 중·장년 세대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것이라 예상할 수도 있으나, Guimond 등(2006)의 주장을 고려하면, 남녀의 역할 구분이 뚜렷하고 상호 사회비교가 빈번하지 않았던 세대에서는 태도에서의 성차가 억제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통적 성차가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인 예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 세대에서의 성차에 관해서는 사전에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가설 3.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이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세대에서 여성의 남성보다 코로나19 대북지원에 긍정적이다.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서 청년 세대 내 성차를 매개하는 심리 변수

성별과 한민족 동일시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한민족 동일시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라틴 아메리카계 미국 이주민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을 다룬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ortes & MacLeod, 1996), 네덜란드 소수민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민족 정체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Verkuyten, 1992). 또한, 민족 동일시에서 성차가 관찰되지 않은 연구들도 존재한다(Kinket & Verkuyten, 1997; Rosenthal & Feldman, 1992; Rotheram-Borus, 1990).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교육이 제공되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에도 청년 세대 한국인 남성과 여성 간에 한민족 동일시 수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론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세대에서의 성별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간의 관계에서 한민족 동일시의 매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매개 역할을 평가하였다.

반면,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에서는 청년 세대에서의 성차가 기대된다. 아동기에 또래집단을 형성하면서부터 남성 또래집단에서는 서로 경쟁하고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놀이 문화가 형성되는 반면, 여성 또래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협력하는 방식의 상호작용 양상이 나타난다(Maccoby, 1990). 성장 후에도 남성에게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사회적 역할로서 기대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주로 요구된다(Eagly, 1987). 이러한 차이로 인해 남성들에게는 개인주의 문화권의 핵심 특성으로 알려진 독립적 자기해석이 우세한 반면, 여성들에게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주로 관찰되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이 발달하게 된다(Cross & Madson, 1997). 이와 일관되게 Schwartz와 Rubel(2005)의 연구에서 70개국 7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개인주의 가치와 정적 상관이 있는 성취(achievement), 권력(power) 가치를 중시한 반면, 집단주의 가치와 상관이 있는 자애(benevolence)와 보편성(universalism) 가치는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집단주의 가치를 쉽게 내재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집단주의 문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 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청년 세대 남성과 여성의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청년 세대에서, 성별이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매개로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예측한다. 여성의 남성보다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하고,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다.

방 법

조사 개요 및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에 앞서 해당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심의하였다(KINU-IRB-2021-01-03-HR-01). 참가자들은 조사전문업체에 등록된 잠재적 응답자 중에서 모집되었으며, 본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관한 안내문을 읽고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응답 도중 언제라도 참여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응답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업체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였다. 참가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

세 이상(2000~2001년생), 만 69세(1951~1952년생) 이하 성인 1,600명이었다. 조사전문업체를 통해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에 따른 인구비례할당표집을 이용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pm 2.45\%$ 였다. 표본의 인구통계 정보를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4월 말부터 5월 초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 시점은 한국에서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4차 대유행 사이로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가하던 시기였다. 의료진 및 의료업계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고 있었고,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었으며, 7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북한은 봉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백신은 아직 북한에 보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각국 언론은 북한이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으며, 국제연합(UN)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절차 및 측정 도구

참가자들은 조사전문업체에서 구축한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에 참여하였다. 전체 문항 중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측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성별 및 연령, (2)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3) 한민족 동일시, (4)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5) 최종학력 및 월평균 가구소득.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당시 실제로 거론되고 있던 네 가지 유형의 대북지원 방안에 참가자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네 가지 대북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방역 물품(예: 마스크, 손소독제) 및 진단키트 지원,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지원, (3) 코로나19 백신 지원, (4)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부 대북 제재 완화.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지지하지 않는다)에서 6점(매우 지지한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네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5).

한민족 동일시

한민족 동일시를 측정하기 위해 Hogg와 Hains(1996)의 척도를 최훈석 등(201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한 네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인지적 성분으로서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지각(예: “귀하는 한민족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낌니까?”)과 한민족이라는 내집단에 대한 정서적 애착(예: “귀하는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낌니까?”)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1점(전혀 느껴지지 않는다)에서 7점(매우 강하게 느껴진다) 사이에 응답하였다. 분석에는 네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6).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Choi(2019)의 여덟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덟 문항은 가치지향성의 핵심 성분인 목표 우선성을 묻는 네 문항(예: “A: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상충하면,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B: 집단의 목표와 개인의 목

표가 상충하면,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과 협동 지향성을 묻는 네 문항(예: “A: 집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보다 경쟁이 필요하다.”, “B: 집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보다 협력이 필요하다.”)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바 있다(Lee et al., 2022). 해당 척도는 양극 척도로서 참가자들은 개인주의 가치지향성을 나타내는 문장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나타내는 문장 가운데 어느 쪽에 상대적으로 더 동의하는지를 6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1 = A에 매우 동의한다, 6 = B에 매우 동의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여덟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81).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에는 SPSS(ver.26.0)와 R(ver.4.4.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분포와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준거변수인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 대해서는 각 지원 항목별 정책지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별 응답 분포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이 준거변수인 코로나19 대북 지원 태도를 예측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매개 변수인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예측하는지를 각각 검증하였다. 연령과 매개변수들을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여 준거변수

인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예측하는지 확인한 후, 간접 효과 추정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재추출 표본 수 10,000). 매개효과 검증 시에는 각 매개 경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단일 매개효과를 먼저 검증한 후, 매개변수가 두 개인 병렬 매개모형을 통해 두 변수의 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개별 분석과 병렬 매개모형 분석의 결과가 다르지 않았으므로, 본문에는 병렬 매개모형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 양상을 확인하는 데는 Johnson-Neyman 기법(Johnson & Neyman, 1936)을 활용하였다. 널리 활용되는 단순 기울기 분석(Aiken & West, 1991)이 조절 변수의 임의의 두 지점(예: ±1 표준편차)에서 예측 변수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반해, Johnson-Neyman 기법은 예측 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거나 유의하지 않은 조절 변수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성별 효과가 유의한 연령대를 확인한 후, 각 연령대별로 성별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를 PROCESS Macro 4번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령에서의 매개효과 분석과 동일하게,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각각에 대해 매개분석을 실시한 후, 두 변수를 함께 모형에 포함시킨 병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병렬 매개모형 분석 결과를 본문에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양방 검증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현황

각 변수의 기술 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예상과 일관되게 연령과 한민족 동일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및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간에 정적 상관이 관찰되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었으며, 성별과 한민족 동일시 및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에 대해서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

한 결과, 척도의 중간점인 3.5점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1599) = -3.90, p < .001, d = 0.10$. 즉,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대복지원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조사 시점에서의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현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및 응답 분포를 확인하였다(표 2 참조). 각 문항에 대해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은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t(1599) = 4.56, p < .001, d = 0.11$, 의료진 지원, $t(1599) = -9.79, p < .001, d = 0.24$, 백신 지원, $t(1599) = -4.58, p < .001, d = 0.11$, 그

표 1.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및 변수 간 상관 ($N = 1,600$)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2	3	4	5	
(1) 연령	44.52(13.30)	-0.06	-1.15	-				
(2) 성별(남=0, 여=1)	-	-	-	.02	-			
(3) 한민족 동일시	4.60(1.27)	-0.49	0.50	.31***	-.04	-		
(4)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3.96(0.75)	-0.25	1.22	.14***	.09**	.25***	-	
(5)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3.38(1.27)	-0.22	-0.31	.18***	-.01	.33***	.23***	-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문항들의 평균, 표준편차, 반응빈도 및 백분율

문항	평균 (표준편차)	반응빈도 (백분율)	
		지지하지 않는다 (1: 전혀 - 3: 별로)	지지한다 (4: 다소 - 6: 매우)
(1) 방역물품 지원	3.65 (1.34)	574 (35.9%)	1,026 (64.1%)
(2) 의료진 지원	3.17 (1.37)	938 (58.6%)	662 (41.4%)
(3) 백신 지원	3.34 (1.44)	792 (49.5%)	808 (50.5%)
(4)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	3.35 (1.34)	779 (48.7%)	821 (51.3%)

리고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에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alpha(1599) = -4.45$, $p < .001$, $d = 0.11$.

연령에 따른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연령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과 그림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연령이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정직

으로 예측하여 가설 1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연령은 매개변수인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서 연령과 매개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포함하여 준거변수를 예측하였을 때,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때, 연령의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함에 따라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연령의 효과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한민족 동일

표 3. 연령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예측변수	준거변수								
	한민족 동일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β	t	P	β	t	P	β	t	P
모형 1									
연령	.31	13.23	<.001	.14	5.75	<.001	.18	7.37	<.001
R^2		.10			.02			.03	
모형 2									
연령							.07	3.02	.003
한민족 동일시							.27	10.89	<.001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15	6.28	<.001
R^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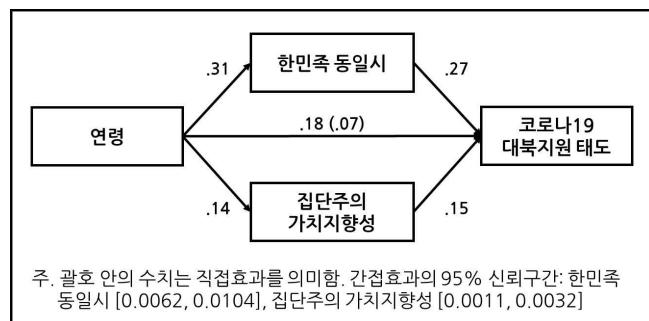


그림 1. 연령과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의 관계에 대한 매개분석

시 및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아 가설 2-1과 2-2가 지지되었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따른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

본 연구에서는 성차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가설 3). 또한 젊은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대북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중·장년층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기대하지 않았다. 통상 연령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데는 연령대별로 구분하는 방법(예: 20대, 30대) 또는 특정 연령 집단이 공유하는 역사적·사회적 경험을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예: 386 세대, IMF 세대)이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공통적으로 하위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과 지점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닌다(박재홍, 2001; Bell, 2020).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기보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하였다.

범주변수인 성별과 연속변수인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남성을 0, 여성을 1로 분류하고, 이 값과 연령을 곱해 상호작용 항을 구성한 후, 이를 각각의 주효과 항과 함께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항이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예측하였다. 즉, 성차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beta = -.12$, $t(1596) = -3.33$, $p = .001$. 성차가 변화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Johnson-Neyman 분석(Johnson & Neyman, 1936; Johnson & Fay, 1950)을 실시한 결과, 29세 미만과 54세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성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9세 미만 참가자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4가 지지되었다. 한편, 사전에 예상하지 않았으나 54세 이상 참가자들의 경우 29세 미만 참가자들과 반대로 남성의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여성보다 긍정적이었다(그림 2 참조).

관찰된 성차에 대한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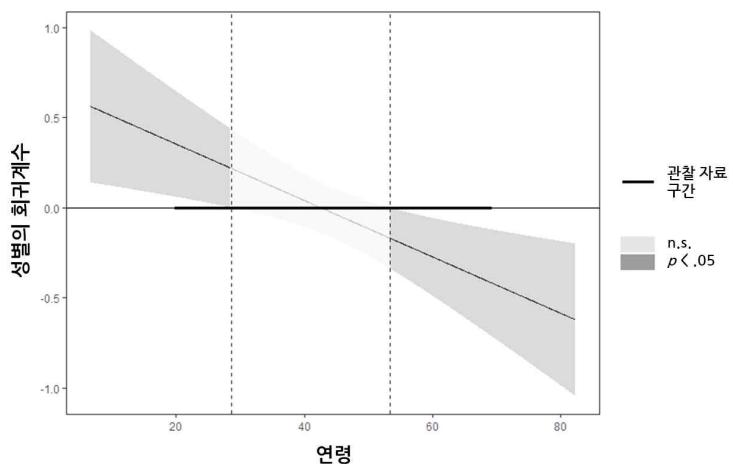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Johnson-Neyman 분석 결과

표 4. 성별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에 대한 연령대별 회귀분석

변수	29세 미만 (<i>n</i> = 249)			54세 이상 (<i>n</i> = 468)		
	β	t	<i>P</i>	β	t	<i>P</i>
모형 1						
성별 →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23	3.75	<.001	-.10	-2.26	.025
R^2		.05			.01	
모형 2						
성별 → 한민족 동일시	.11	1.73	.084	-.10	-2.18	.030
R^2		.01			.01	
모형 3						
성별 →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18	2.86	.005	-.04	0.78	.437
R^2		.03			<.01	
모형 4						
성별 →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17	2.85	.005	-.09	-2.02	.044
한민족 동일시 →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28	4.68	<.001	.17	3.77	<.001
집단주의 가치지향성 →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20	3.30	.001	.13	2.92	.004
R^2		.21			.07	

주의 가치지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29세 미만 참가자와 54세 이상 참가자 각각에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먼저, 29세 미만 참가자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29세 미만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으나, 한민족 동일시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매개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때, 성별의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분 매개로 해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으나, 한민족 동일시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였다. 즉, 29세 미만 참가자들에서의 성차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에 의해서만 매개되었다.

반면, 54세 이상 장년 세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54세 이상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한민족 동일시 수준이 높았으나,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에서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과 매개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투입하였을 때,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 때, 성별의 직접효과가 여전히 유의하였기 때문에 부분 매개로 해석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한민족 동일시를 통한 간접효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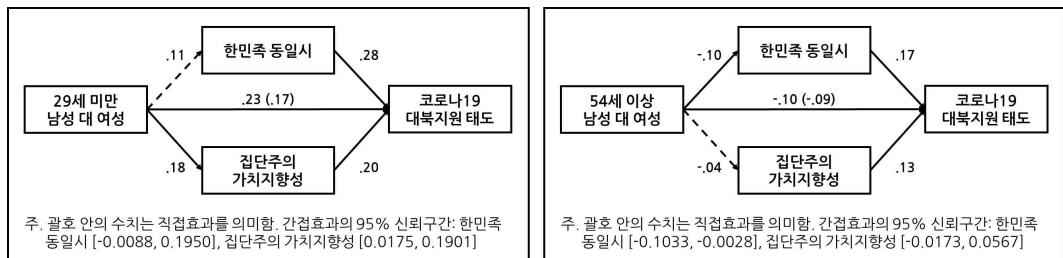


그림 3. 성별과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의 관계에 대한 연령별 매개분석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였다. 즉, 54세 이상 참가자들에서의 성차는 한민족 동일시에 의해서만 매개되었다.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인도적 대복지원에 대한 태도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한민족 동일시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이러한 차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남북관계 연구에서 보고된 인구통계 변수에 의한 단순 현상 기술 및 예측과는 다른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록 코로나19 대유행이 과거의 사건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최근 한국인의 사회 현안에 관한 태도에서 관찰되는 연령별·성별 분절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주요 인구통계 변수별 하위집단 간에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심리 변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연령의 주효과 및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

가 긍정적이었으며(가설 1), 한민족 동일시(가설 2-1)와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가설 2-2)이 이를 매개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이해하는데 매개효과에 대한 전통적인 인과적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인구통계변수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연결되어 있어 연령이나 성별이 그 자체로 특정 변수의 원인 변수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부분 매개효과는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에서 관찰되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정 부분 한민족 동일시 및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에서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참조: MacKinnon et al., 2000).

코로나19 대복지원 태도에서의 연령차가 한민족 동일시 및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통일 담론 및 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으로 통일 정책과 교육을 이끌어 온 민족주의 담론은 1990년대 이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세계적으로 다민족 국가가 일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면 하나의 민족에 하나의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다(백낙청, 1996). 이러한 배경에서 현실적 편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 및 정책 홍보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힘을 얻고 있다(임현진, 정영철, 2011).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이

약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게 통일의 편익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야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돈을 점화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에 대한 생각을 환기하였을 때 자율성, 자조(self-sufficiency) 관련 행동이 활성화되고, 집단주의적·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Kasser, 2016; Vohs, 2015; Vohs et al., 2006).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한민족 동일시의 표준화 회귀계수($\beta = .27$)가 연령($\beta = .07$)이나 집단주의 가치지향성($\beta = .15$)의 계수보다 커졌다. 이는 한민족 동일시의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이 강하다는 의미이며, 대북지원 지지에 있어서 여전히 민족의식이 핵심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통일의 당위성이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민족주의 담론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과도 상응한다(강만길, 2000; Park & Kim, 2019).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민족의식의 고취가 통일 문제에 대한 짚은 충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경로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민족의식에 대한 강조가 다원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입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면서 통일 교육 및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족주의 통일 담론과 다문화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담론의 정립이 요구된다(이석희, 강정인, 2017). 이러한 맥락에서 한민족 범주 복잡성과 북한에 대한 관용의 관계를 다룬 최근 사회심리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하연 등(2023)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민족

을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상위 범주(복잡성 저 조건) 또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넓은 범주(복잡성 고 조건)로 표상하도록 한 후 한민족 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복잡성이 높은 표상이 활성화된 조건에서는 한민족 동일시가 북한에 대한 관용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복잡성이 낮은 표상이 활성화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한민족의 개념을 남과 북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표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민족 동일시의 긍정적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민족을 같은 혈통을 지닌 단일 민족이 아닌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새롭게 표상하는 방법이 민족주의 통일 담론을 유지하면서도 다문화 사회의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설 3과 일관되게,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서의 성차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9세 미만 참가자들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54세 이상 참가자들에서는 반대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Inglehart 와 Norris(2000)가 제안한 전통적·현대적 성차 개념과 상응하며, 성차에 생물학적인 요소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과도 일관된다(Eagly, 1987; Guimond et al., 2006).

자세히 살펴보면, 29세 미만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성차는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관련이 있었다. 즉, 29세 미만 남성들은 같은 연령대 여성들보다 개인적 이익·손해에 민감하며, 이로 인해 개인에게 이득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지 않는 코로나19 대북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20대 남성의 정치적 보수화 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이들이 어떤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지에 대한 학술적 고찰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의 진보-보수 정치성향은 정치가들이 사회 의제를 조직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Converse, 1964).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성향은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정당 및 정치인들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인식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일관되게, 한국 사회에서 정치성향은 안정된 개인차로서의 이념이나 태도라기보다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자기표현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김성연, 2023; 이연주 등, 2024). 본 연구의 결과는 20대 남성과 여성의 대북지원 태도 차이를 정치성향의 차이로 훈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만으로 특정 인구통계 하위집단을 진보 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것은 실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하위집단의 심리적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20대 남성과 여성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지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면,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주의 성향을 지니게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예: 취업난)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54세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사전에 예상하지 않은 성차가 관찰되었다. 29세 미만 참가자들과는 반대로 54세 이상 남성이 동 연령대 여성보다 긍정적인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거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전통적 성차 개념과 상응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관찰된 54세 이상 참가자들에서의 성차와 이에 대한 한민족 정체성의 매개효과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연관지어 이해해 볼 여지가 있다. 즉, 과거 가정과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해당 세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경험하고 신장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한민족 동일시와는 별개로, 남성들에 비해 안전에 민감한 여성들의 특성 역시 이러한 차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류현숙 등,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장년 세대에서는 위험에 민감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대북지원에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북한을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약한 청년 세대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54세 이상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성차의 경우 효과크기가 작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즉, 54세 이상 참가자들의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의 변산에서 성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로 매우 낮았으므로($R^2 = .01$, 표 4 참조), 54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한민족 동일시 및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에서의 차이는 현실에서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것일 수 있다.

코로나19 대북지원 태도를 측정한 문항 각각에 대한 분석 결과 역시 중요한 실용적 함의를 제공한다. 문항별 응답 현황을 보면, 참가자들은 방역물품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의료진 지원, 백신 지원, 그리고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에는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효과크기를 보면, 의료진 지원에서의 부정적 태도와 척도 중간점 간의 차이는 약한 효과크기였으나, 나머지 차이의 효과크기는 미미하였다(Cohen, 1992). 즉, 방역물품 지원, 백신 지원,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의료진 지원에 대해서만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보면, 참가자들이 인적 지원인 의료진 지원에서 특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북한을 위협의 대상으로 보느냐, 협력의 대상으로 보느냐가 북한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남북관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안전과 무관한 물적 지원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편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용이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단일 시점에서 측정된 횟단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찰된 매개변수와 준거변수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실에서 대북지원 태도와 한민족 동일시, 집단주의 가치지향성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으며, 이들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매개 효과가 완전 매개가 아니었다는 점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심리 변수 외에도 추가적인 매개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향후 연구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심리변수를 발굴해 나감으로써 현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임의로 연령 하위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통계 분석을 통해 예측변수의 효과가 변화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29세 미만의 청년 세대와 54세 이상의 장년 세대를 구분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 및 변수 특성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이를 곧바로 모집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장래 연구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연령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통일 및 대북지원에 관한 기존의 학술연구들은 정책 분석을 통해 제언을 도출하거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책 지지에서의 차이를 기술하는 데 머물렀다. 한국 사회와 이를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통일 및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상에 대한 기술이나 단순 예측은 지식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현상의 심리적 기원을 점검하는 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대북지원 등 북한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는 정치성향과 지지정당에 따라 극단적으로 나뉘며, 이러한 의견 대립은 대표적인 ‘남남 갈등’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강원택, 2004). 이러한 실태를 고려할

때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의 근간을 이루는 심리 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이론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한국에서 사회문제 심리학의 외연을 넓히고 심리학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만길 (2000). 강만길 선생과 함께 생각하는 통일. 지영사.
- 강원택 (2004). 제1부: 남남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 단일호, 55-100.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구본상 (2020). 한국인의 통일의식에서의 성차 검증: 여성평화가설의 적용. 한국정치학회보, 54(5), 99-124.
<https://doi.org/10.18854/kpsr.2020.54.5.005>
- 구본상, 최준영 (2019). 변화하는 한반도 환경 하에서의 우리 국민의 통일인식 분석: 현대적 성차, 국가 자부심, 통일효용 인식. OUGHTOPIA, 34(1), 43-75.
<https://doi.org/10.32355/OUGHTOPIA.2019.05.34.1.43>
- 권영승, 이수정 (2011). 글로벌·다문화 사회의 통일의식: N세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 1-38.
- 김병조 (2015).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3-41.
<https://doi.org/10.35369/jpus.7.2.201512.3>
- 김성연 (2023).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인식과 오해: 20대 대통령 선거 분석 결과. 사회과학연구, 62(3), 341-358.
<https://doi.org/10.22418/JSS.2023.12.62.3.341>
- 김한나, 박원호 (2023). 청년 세대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탈북자 수용에 관한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57(4), 59-89.
<https://doi.org/10.18854/kpsr.2023.57.4.003>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2.
<https://doi.org/10.21193/kjspp.2010.24.4.004>
- 남영민, 윤지현 (2020). 남한 성인의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53(2), 215-229.
<https://doi.org/10.4163/jnh.2020.53.2.215>
- 남희은, 김선희, 배은석 (2014). 대학생의 개인 주의-집단주의 가치성향에 따른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통일인식영향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단일권(60), 86-109.
-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류현숙, 권혁빈, 이건, 권세영 (2013). 대북 안보의식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3-0213-V1.0>
- 박명호 (2009). 2008 총선에서 나타난 세대 효과와 연령 효과에 관한 분석: 386 세대를

-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8(1), 65-86.
- 박범종, 서선영. (2020). 통일과 북한에 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부산, 울산, 경남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민족문화, 단일권*(75), 377-403.
<https://doi.org/10.15299/jk.2020.05.75.377>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주화, 이민규, 최훈석, 권영미, Steven Sloman, Eran Halperin. (2019). 2019 한국인의 평화 의식. *통일연구원*.
- 박주화, 최훈석, 권영미, 이하연. (2020).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통일연구원*.
- 박주화, Eran Halperin, 최훈석, 권영미, 이하연, 서정길. (2021). 2021 한국인의 평화의식. *통일연구원*.
- 박준성. (2024). 한국 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문화심리학적 이해: 수직적 관계주의와 수평적 관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30(4), 635-649.
<https://doi.org/10.20406/kjcs.2024.11.30.4.635>
- 박찬, 최훈석. (2023). 남북통합 행동의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1), 89-100.
<https://doi.org/10.21193/kjspp.2023.37.1.005>
- 배진석. (2018). 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한국과 국제정치*, 34(2), 99-135. <https://doi.org/10.17331/kwp.2018.34.2.004>
- 백낙청. (1996). 한반도식 통일, 현재진행형. 창작과 비평사.
- 변종현. (2012). 20대 통일의식과 대학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 정책 연구*, 21(1), 157-186.
- 변종현. (2021). 통일의식에서 현대적 성차의 함의. *倫理研究*, 1(135), 165-190.
<https://doi.org/10.15801/je.1.135.202112.165>
- 서현진. (2008). 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 참여 와 세대에 관한 연구. *의정연구*, 14(2), 117-142.
- 송두율. (2000). 민족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겨레신문사*.
- 오세제, 이현우. (2014). 386세대의 조건적 세대효과: 이념성향과 대선투표를 대상으로. *의정연구*, 41, 200-230.
- 윤성이, 이민규. (2011). 한국사회 이념측정의 재구성. *의정연구*, 34, 63-82.
- 이내영. (2002). 세대와 정치이념. *계간 사상*, 53-79.
- 이내영. (2014).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2(1), 167-206.
- 이석희, 강정인. (2017).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 연구*, 26(2), 1-28.
<https://doi.org/10.35656/JKP.26.2.1>
- 이연주, 김민지, 김태희, 최승원. (2024). 한국 노인의 집단기억에 따른 정치성향에 대한 면담 도구 개발. *사회과학연구*, 63(3), 55-76. <https://doi.org/10.22418/JSS.2024.12.63.3.55>
- 이용희. (2021). 북한 코로나19 의 실태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 *통일전략*, 21(1), 105-141.
- 이하연, 권영미, 서정길, 박주화, 최훈석. (2022). 한국인의 이중 사회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남북한 통일태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4), 281-306.
<https://doi.org/10.21193/kjspp.2022.36.4.003>

- 이하연, 최훈석, 노중현, 도은별, 한지민 (2023). 남북한 관계에서 한민족 범주복합성과 한민족 동일시가 외집단 관용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139-158.
<https://doi.org/10.21193/kjspp.2023.37.3.003>
- 임승엽, 최영진, 임영삼 (2018).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4), 65-81.
<https://doi.org/10.22173/kssss.2018.31.4.4>
- 임현진, 정영철 (2011). ‘전환의 계곡’을 넘어: 통일편의,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혜택. *역사비평, 단일권*(97), 318-348.
- 장기영 (2018). 북핵 해법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 대북 선제공격 대(對) 대북 원조. *미래정치연구*, 8(2), 33-57.
<https://doi.org/10.20973/jofp.2018.8.2.33>
- 정순미 (2009). 다문화시대 민족 정체성 교육의 방향: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를 중심으로. *倫理研究*, 1(75), 131-152. <https://doi.org/10.15801/je.1.75.200912.131>
- 정은찬, 김재현 (2014).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실질 소득격차 분석. *아시아여성연구*, 53(1), 33-64.
- 최종숙 (2020).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성향과 젠더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단일권*(125), 189-224.
<https://doi.org/10.18207/criso.2020..125.189>
- 최혜원 (2023). 한국은 개인주의적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 대중가요 가사, 아기 이름 속 개인주의 변화 추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3), 327-351.
- 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59-284.
<https://doi.org/10.20406/kjcs.2021.8.27.3.259>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충소된 사회정책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4.003>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정훈 (2016).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사례분석. *한국정치학회보*, 50(4), 105-126.
<https://doi.org/10.18854/kpsr.2016.50.4.005>
- 허석재 (2014). 세대교체와 북한인식의 변화: 코호트 분석. *평화연구*, 22(2), 73-112.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Publications.
- Au, K. Y. (1999). Intra-cultural variation: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0, 799-812.
<https://doi.org/10.1057/palgrave.jibs.849084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Bar-Tal, D. (2000).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21*(2), 351-365.
<https://doi.org/10.1111/0162-895X.00192>
-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11), 1430-1453.
<https://doi.org/10.1177/0002764207302462>
- Bell, A. (2020). Age period cohort analysis: a review of what we should and shouldn't do. *Annals of Human Biology, 47*(2), 208-217.
<https://doi.org/10.1080/03014460.2019.1707872>
- Bennett, M., & Sani, F. (Eds.). (2004).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self*. Psychology Press.
- Choi, H.-S. (2019, July 11-13). *A new model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that suggests what we might do within and between groups* [Presidential address]. The 13th biennial conference of the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Taipei.
- Choi, H.-S. (2024). Individualism-collectivism and group creativity: A synergy perspective. In M. J. Gelfand, C.-Y. Chiu, & Y.-Y. Hong (Eds.), *Handbook of advances in culture and psychology* (Vol. 10, pp. 215-260).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55-159.
<https://doi.org/10.1037/0033-2909.112.1.155>
- Converse, 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Critical Review, 18*, 1-74.
<https://doi.org/10.1080/08913810608443650>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https://doi.org/10.1037/0033-2909.122.1.5>
- Dallago, F., Cima, R., Roccato, M., Ricolfi, L., & Mirisola, A. (2008). The correlation betwee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olitical and religious identity.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0*(4), 362-368.
<https://doi.org/10.1080/01973530802502333>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Lawrence Erlbaum.
- Gaertner, S. L., Dovidio, J. F., Anastasio, P. A., Bachman, B. A., & Rust, M. C. (1993).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1), 1-26.
<https://doi.org/10.1080/14792779343000004>
- Guimond, S., Chatard, A., Martinot, D., Crisp, R. J., & Redersdorff, S. (2006). Social comparison, self-stereoty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2), 221-242.
<https://doi.org/10.1037/0022-3514.90.2.221>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95-309.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95>

- Huddy, L., Sears, D. O., & Levy, J. S. (2013). Introduction: Theoretical foundations of political psychology. In L. Huddy, D. O. Sears, & J.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2nd ed. pp. 1-19).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9760107.013.0001>
- Inglehart, R., & Norris, P. (2000). The developmental theory of the gender gap: Women's and men's voting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1(4), 441-463.
<https://doi.org/10.1177/0192512100214007>
- Johnson, P. O., & Fay, L. C. (1950). The Johnson-Neyman technique, its theory and application. *Psychometrika*, 15, 349-367.
<https://doi.org/10.1007/BF02288864>
- Johnson, P. O., & Neyman, J. (1936). Tests of certain linear hypotheses and their application to some educational problems. *Statistical Research Memoirs*, 1, 57-93.
- Kasser, T. (2016). Materialistic values and goal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7(1), 489-514.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122414-03344>
- Kinket, B., & Verkuyten, M. (1997). Levels of ethnic self-identification and social context.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0(4), 338-354.
<https://doi.org/10.2307/2787094>
- Lee, H. Choi, H.-S., & Travaglino, G. A. (2022). The combined role of independence in self-concept and a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in group-focused enmit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6, 1-16.
- <https://doi.org/10.11576/ijcv-5085>
- Leung, A. K. Y., & Cohen, D. (2011). Within-and between-culture var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 cultural logics of honor, face, and dignity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3), 507-526.
<https://doi.org/10.1037/a0022151>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20.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https://doi.org/10.1023/A:1026595011371>
- Mannheim, K.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In P. Kec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pp. 276-320). Routledge and Kegan Paul. (Original work published 1928)
- Mirisola, A., Sibley, C. G., Boca, S., & Duckitt, J. (2007). On the ideological consistency between right-wing authoritarianism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7), 1851-1862.
<https://doi.org/10.1016/j.paid.2007.06.006>
- Park, J., & Kim, K. (2019). Ethnic Identification Matters. *Asian Perspective*, 43(4), 673-697.
<https://doi.org/10.1353/apr.2019.0028>
- Pelto, P. J., & Pelto, G. H. (1975). Intra-cultural diversity: Some theoretical issues. *American Ethnologist*, 2(1), 1-18.
<https://doi.org/10.1525/ae.1975.2.1.02a00010>
- Portes, A., & MacLeod, D. (1996). What shall I call myself? Hispanic identity formation in the second gene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 193), 523-547.
<https://doi.org/10.1080/01419870.1996.9993923>
- Realo, A., & Allik, J. (2002). The nature and scope of intra-cultural variation on psychological dimensions. *Online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2(2), 4.
<https://doi.org/10.9707/2307-0919.1019>
- Rosenthal, D. A., & Feldman, S. S. (1992). The nature and stability of ethnic identity in Chinese youth: Effects of length of residence in two cultural contex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3(2), 214-227.
<https://doi.org/10.1177/0022022192232006>
- Rotheram-Borus, M. J. (1990). Adolescents' reference-group choices, self-esteem,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1075-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9.5.1075>
- Schwartz, S. H., & Rubel, T. (2005). Sex differences in value priorities: cross-cultural and multimethod stud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1010-1028.
<https://doi.org/10.1037/0022-3514.89.6.1010>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47).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C. (2004).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J. T. Jost & J. Sidanius (Eds.), *Political psychology: Key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pp. 276-293). Psychology Press.
- Triandis, H. C., & Gelfand, M. J. (2012). A theor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498-520). Sage Publications.
- Verkuyten, M. (1992). Ethnic group preferences and the evaluation of ethnic identity among adolescents in the Netherland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2(6), 741-750.
<https://doi.org/10.1080/00224545.1992.9712104>
- Vohs, K. D. (2015). Money priming can change people's thoughts, feelings, motivations, and behaviors: An update on 10 years of experi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4(4), e86-e93.
<https://doi.org/10.1037/xge0000091>
- Vohs, K. D., Mead, N. L., & Goode, M. R. (2006).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money. *Science*, 314(5802), 1154-1156.
<https://doi.org/10.1126/science.1132491>
- Youssef, H., & Christodoulou, I. (2018). Exploring cultural heterogeneity: The effect of intra-cultural variation on executives' latitude of actions in 18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 Cultural Management*, 18(2), 241-263.
<https://doi.org/10.1177/1470595818790611>

논문 투고일 : 2025. 04. 28

1차 심사일 : 2025. 08. 27

게재 확정일 : 2025. 10. 16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Mediating Roles of Ethnic Identification and
Collectivist Value Orientation**

Jeong-Gil Seo

Sungkyunkwan University

Hayeon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Young-Mi Kwon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Juhwa Park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amined how attitude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varied by age and gender, and whether these differences were mediated by Han ethnic identification and collectivist value orientation. Humanitarian assistance in times of disaster,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can serve as a gateway to inter-Korean exchange and reconciliation. Thus, identifying the predictors of such attitudes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building peaceful inter-Korean relations. Analyzing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in 2021 ($N = 1,600$), we found that age positively predicted attitudes toward humanitarian aid, and this association was mediated by Han ethnic identification and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Gender differences were moderated by age. Among younger adults under the age of 29, women reported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did men, whereas among older adults aged 54 and above, men reported more positive attitudes than did women. Moreover, the gender difference among younger adults was mediated by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whereas the difference among older adults was mediated by Han ethnic identific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bgroup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can be explained by illuminating the role of Han ethnic identification and collectivistic value orientation. We discussed how the current findings may contribute to addressing the key issues in inter-Korean relations.

Key words : Attitudes toward humanitarian aid to Nor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ge, gender, Han ethnic identification, collectivis value orientation

부록.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N = 1,600$)

변수	빈도	백분율	변수	빈도	백분율
연령			최종학력		
20대	292	18.3	무학/초졸/중졸/고졸	364	22.8
30대	291	18.2	전문대졸	272	17.0
40대	354	22.1	대학졸	803	50.2
50대	370	23.1	대학원졸	161	10.1
60대	293	18.3	월평균 가구소득		
성별			100만원 미만	66	4.1
남성	816	51.0	100만원~200만원	100	6.3
여성	784	49.0	200만원~300만원	270	16.9
현재 거주지역			300만원~400만원	296	18.5
서울	307	19.2	400만원~500만원	249	15.6
인천/경기	513	32.1	500만원~600만원	200	12.5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396	24.8	600만원~700만원	161	10.1
광주/전북/전남	150	9.4	700만원 이상	258	16.1
대전/세종/충북/충남	167	10.4	정치성향		
강원	47	2.9	진보	738	46.1
제주	20	1.3	중도	423	26.4
			보수	439	27.4